

학생·학부모·학원 '코로나 몸살 중'

정부 학원 휴원 권고에 학생들 "수업 안해야 하는데... 짜증나"
 학부모들 "고교과정 선행학습 배워가야 하는데... 어쩌나"
 학원 "보강 수업 짜기 힘들고 학부모 눈치에 임대료도 걱정"

#.학생 : "정부는 쉬라는데 (우리 학원은) 나오래요!"
 학부모 : "학원 한다고 PC방 같은 데 가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중 3이면 고등학교 과정을 두 번은 봐야하는데 어떻게 해요?"
 학원 : "휴원을 하면 수강료를 돌려달라거나 다른 학원으로 옮길 학부모들도 생길 것 같고 그대로 운영하면 교육청 눈치도 보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학원들한테 쉬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원은 4개 중 2개만 쉬네요."
 24일 오전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학원가에서 만난 A(문성중 2학년)군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A군은 "방학 내내 학원만 다녀서 이번엔 모든 학원이 다 휴원하길 기대했는데 솔직히 짜증난다"며 "집에서 게임을 실패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말을 즐겼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부모와 자녀, 학원 간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는 말이 나온다.
 휴원은 학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수업에 이어가는 학원도 있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 입장도 제각각이다.
 정부의 휴원 권고로 광주에서는 3492개

학원 중 1312개(27%)가 이날 문을 닫았고, 전남도 3380개 학원 중 666개(20%) 학원이 휴원했다. 휴원 학원 수는 이번 주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휴원을 선언한 학원들이 속속 늘어나면서 이날 오전 '광주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봉선동 학원가와 동구 동명동은 인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날 문을 닫은 동구 동명동 B학원 관계자는 "오늘 선생님들과 회의해 29일까지 휴원을 결정했다"면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휴원으로 그만큼 학원 수업을 못하니 수강료 납입을 제 때 받으려면 일주일치 보강수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시간표 짜기도 어렵고 학부모들 눈치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원 2-3개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 수업별 날짜를 맞추기 어렵고, 오래 쉬면 개학까지 며칠 남지 않은 탓에 학생들 수업 진도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학원업계측은 사실상 정부의 강제 권고 안이나 마찬가지로 자칫 교육청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부담스

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반면, 학생들은 얼굴에 웃음기가 들었다. 동아여중 1학년에 재학중인 C양은 "오전에 휴원 문자가 왔다. 원래 지금 학원에 갈 시간이지만 친구를 잠깐 만나기로 했다"고 신이난 듯 말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냐"면서도 성적 향상의 최대 변수라는 불안감을 이대로 넘기는 게 아쉽다는 반응도 묻어났다.
 주부 E(48)씨는 "건강이 우선이지만, 이번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이에게 불만족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교에 올라가기 전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학습으로 배워갈 생각을 갖고 있던 만큼 자칫 개학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할까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 백우선 회장은 "원장님들에게 정부 휴원 방침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휴원도 길어질 수 있어 학원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19 여파에 휴원을 결정한 학원들이 늘어나면서 24일 오전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학원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나도 혹시? 시민들 코로나 검사 의뢰 폭주

선별진료소 찾아 줄서 기다려
 광주 지역 보건소 3배 이상 늘어



24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주민들이 열기침 증상과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구 신천지 예배를 다녀온 뒤 광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검사를 의뢰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누가 감염원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광주·전남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와 검사의뢰가 가능한 만큼 몸 상태가 조금만 이상해도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찾아오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보건소는 일반진료·물리치료·예방접종 등을 중단하고, 전원이 코로나19 검사 등에 나섰지만 쏟아지는 상담·문의전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북구보건소의 경우 의심자들에게 나눠주는 체온계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24일 광주북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53명의 시민이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며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의뢰했다.
 광주에서 신천지 대구 예배를 다녀온 확진자가 나오기 전만 해도 하루 평균 15명 수준이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게 북구보건소 설명이다. 신천지 예배를 다녀온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부터 확진자 이동 경로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선별진료소를 찾고 있으며,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서구보건소도 평소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45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의뢰하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동·남구도 평소의 3배 이상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다.

급기야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는 진단서나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발급하거나 일반진료·물리치료·예방접종·한방실업무 등을 중단한 채 검사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평소 저렴한 비용으로 물리치료나 예방 접종을 받았던 지역민들은 민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일반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업무를 보던 직원 10여 명이 모두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됐지만 전화 상담·역학조사·의심환자 관리까지 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브리핑 때 수어통역 제공을"

장애인 단체 성명

장애인들이 코로나 19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보 제공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광주를 비롯,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 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는 또 "각각 장애인들도 지역의 보건소를 비롯, 지정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센터의 통역 가능 인력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탄가스 흡입하고 119에 피자주문 30대 여성 입건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119에 피자배달을 주문한 30대 여성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화학적물질 관리법 위반)로 입건.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여·37)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모텔에 투숙해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119 상황실 직원에게 피자를 주문했다는 것.

○신고전화를 받은 소방대원은 A씨가 험기워하는 말투로 "뛰어내리라는 환청이 들린다"고 말하자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A씨가 울고 있었다. 부탄가스 흡입 탓인지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p>문흥지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 576-4150</p>
---	--	---